

조상우 빠진 넥센 4선발 '젊은 피'에게 기회 준다

금민철·하영민·박주현·김상수·김정훈 후보에



조상우(22·사진)의 이탈로 넥센 선발진에는 큰 구멍이 생겼다. 넥센은 손승락(롯데), 한현희(쌍용지수), 앤디 밴 헤켄(세이부)의 이탈로 마운드 대수술이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발투수로 자리를 옮긴 조상우의 공백은 몹시 뼈아프다.

조상우는 지난달 26일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구장에서 벌어진 삼성전에 선발등판했으나, 1회 공 5개만 던지고 교체됐다. 28일 귀국해 29일 서울 김진섭정형외과, CM중무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팔꿈치 주무골(머리뼈) 피로골절'이었다. 피로골절이란 뼈가 한순간에 부러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한 미세골절이다. 전지훈련을 지휘 중인 넥센 감독은 "조상우는 1년간 꼭 쉬게 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내 욕심으로 무리시켰다"며 자책했다.

마냥 아쉬워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하루빨리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 기존 선발요원 문성현마저 입대해 대체자를 찾기 쉽지 않지만, 준비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영 감독이 짚은 선발 후보는 금민철, 하영민, 박주현, 김상수, 김정훈이다. 프로 12년차 금민철은 팔타입 선발 경험이 있다. 하영민, 김상수도 영 감독이 꾸준히 지켜본 선발감이다. 2년차 박주현은 키 184cm, 몸무게 110kg의 당당한 체격을 지닌 5선발 후보다. 김정훈은 지난해 필승계 투 후보였다.

영 감독은 "한 명이 4선발로 들어간다. 상우가 빠진 자리는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새로운 선수들이 자리 잡아주면 더 강한 팀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주현이, (하)영민이, (김)정훈이는 구축이 점차 올라오고 있어 기대된다. 2군 캠프에 있는 최원태가 들어갈 수도 있다. 5선발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 비워놓는 자리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하영민, 박주현은 2일 구시가와구장에서 벌어진 SK와의 연습경기에 등판해 마지막 점수를 마쳤다. 선발등판한 하영민은 3이닝 동안 3안타 2사구 2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bat을 이어받은 박주현은 3이닝 1안타 1볼넷 1탈삼진 1실점(비자책)으로 호투했다. 박주현은 경기 후 투수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상금 1만원(약 11만원)을 받았다.

오키나와(일본)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김하성 "무조건 이겨야 산다"

연습경기 SK전 3안타 3타점 1도루



"경기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2016시즌 넥센의 주전 유격수는 김하성(21·사진)이다. 데뷔 2년째인 지난해 14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0, 19홈런, 73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르며 단숨에 리그 정상급 유격수로 발돋움했다. 넥센의 일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도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새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하성은 2일 구시가와구장에서 벌어진 SK와의 오키나와 연습경기 최종전에 4회 대수비로 출장했다. 팀이 0-4로 뒤진 상황, 부담 없이 마음껏 뛰어보려는 넥센 영감독 감독의 배려였다. 그러나 "경기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러한 김하성의 승부욕은 여전했다. 6회 첫 타석부터 적시타로 팀의 첫 득점을 만들었다. 2-4로 뒤진 8회 1사 1-2루선 우전적시타를 타트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가볍게 쳐서 만들어낸 안타였다. 실 틈도 없이 2루를 훑으며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다.

김하성은 5-4로 역전한 9회초 2사 2루서도 유격수 킷을 넘는 적시타를 때렸다. 매끄럽지 못했던 상대 수비를 틈타 2루까지 내달렸다. 영 감독이 캠프 기간 내 강조한 공격적 주무를 몸소 실천했다. 넥센은 3타수 3안타 3타점 1도루를 기록한 김하성의 활약에 힘입어 SK를 6-4로 제압했다. 이로써 5연승을 기록한 넥센은 6승1무2패의 성적으로 연습경기 일정을 마감했다. 김하성은 경기 후 야수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상금 1만원(약 11만원)을 받고는 함박웃음을 지었다.

경기 후 만난 김하성은 "타격감은 좋다. 타석에서 싸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감독, 코치님들의 배려로 체력관리가 잘됐다. 비록 연습경기이지만 하지만, 경기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정규시즌에도 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영 감독도 "공격적 주루가 좋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오키나와(일본) | 강산 기자

“제2 강정호? 이젠 이병규 선배가 롤모델”

(LG 9번)

베이스볼 피플 넥센 임병욱

축망받던 유격수에서 중견수로 포지션 변경 "유격수에 대한 미련? 하성이 잘하잖아요 올시즌 주전으로 3할·30홈런·30도루 목표"



올해로 프로 데뷔 3년째를 맞은 넥센 임병욱은 영감독 감독이 주전 중견수로 짚은 '에이스'이다. "이병규(LG·9번)의 전성기를 봤다"는 영 감독의 말에 임병욱은 "이젠 무조건 '이병규 선배처럼 큰 선수가 돼야 한다'는 꿈이 생겼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키나와(일본) | 강산 기자

올해는 다르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생겼다. 넥센 영감독 감독에게 좋은 의미로 찍혔다. 영 감독은 지난 시즌 막판부터 "임병욱을 주전 중견수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영 감독은 "임병욱은 넥센의 스타를 넘어 리그 톱클래스로 성장할 자질이 충분하다"며 "이병규(42·LG 9번)의 전성기 모습을 봤다. 계획대로 성장하면 이병규처럼 클 수 있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 꾸준히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넥센의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임병욱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자신의 각오를 들려줬다.

-지난해 말부터 영 감독에게 찍힌 선수로 관심을 받았다. "처음 입단했을 때도 주목받긴 했지만,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못 했다. 보여준 것도 없었다. 지금은

외부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응원해주는 팬들께 감사드린다. 배운 대로만 하면 잘될 것이다."

-일찌감치 주전 중견수로 낙점 받았다. 한결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잘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잘한다'는 생각만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알아서 자신감도 불려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올해는 잘할 것이다."

-보완해야 할 점과 캠프에서 얻은 소득은. "아직 다 부족하다. 경기감각이 없어서 실수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럴 때마다 기죽으면 안 된다. 매번 캠프에 따라오긴 했지만, 올해는 확실히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 과거와 달리 자신감은 확실히 얻었다."

-영 감독이 임병욱에게 '이병규의 전성기를 봐라'고 했다. 자신에게 이병규는 어떤 존재인가. "이병규 선배는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선수다. 콘택트 능력과 수비가 일품이다. 무엇보다 빠지는 게 없는 선수다. 어릴 적에 이병규 선배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이병규 선배처럼 큰 선수가 돼야 한다'는 꿈이 생겼다."

-입단 당시 '제2의 강정호'로 성장할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제는 유격수가 아닌 중견수다. 포지션 적응이 힘들진 않았나.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있을지를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

은 경기에 나가는 것이다. 연습 때와 실전에서 날아오는 타구는 많이 다르다. 1차 캠프 청백전 때도 많이 해봤다. 하지만 경기에 계속 나가면서 적응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다. 타구음만 듣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고 있다."

-유격수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처음에는 있었다(웃음). 하지만 지금 (김)하성이 잘하고 있고, 나도 잘하는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아직 100% 만족하진 못하지만, 중견수로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남에게 지지 않을 자신은 있다. 승부욕과 근성이다."

-올 시즌 목표가 궁금하다. "3할 타율, 30홈런, 30도루를 하겠다고 항상 말해왔다.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목표를 크게 잡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올 시즌 성공을 위한 키는. "두 가지다. 다치지 않는 것과 겸손한 태도다. 부상을 당하면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다. 다치지 않더라도 건방지게 행동하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 예전에 발목을 다쳤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정말 야구를 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달은 시간이었다.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겸손하게 행동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일본)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우승 노리는 메츠 선발진 뉴욕 메츠 투수들이 2일(한국시간) 스프링캠프 훈련이 시작되기에 앞서 사진기자들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잭 윌러, 스티븐 매츠, 제이콥 디그롬, 노아 신더가드, 맷 허비, 바르로 콜론(오른쪽부터)으로 구성된 메츠 선발진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최정상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AP/시사포트)

“LG표 스피드 야구? 상대 괴롭히는 끈질긴 야구”

지난 시즌 팀 도루 7위·도루 실패 1위 양상문감독 "죽더라도 나가면 뛰어라"



LG 양상문 감독(가운데)은 팀에 빠른 선수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LG표 스피드 야구'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가 그 같은 구상의 시범이다. 사진제공 | LG 투윈스

LG는 2016시즌 '뛰는 야구'를 선언했다. 그러나 LG에 빠른 선수는 없다. 지난 시즌 팀 도루(113개)만 살펴봐도 한화(80개), SK(94개), 넥센(100개)에 이어 4번째로 적었다. 도루 실패(62개)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았다. 팀에서 두 자릿수 도루를 기록한 선수도 오지환(25개), 박용택, 김용의(이상 11개) 등 3명에 불과했다. 올 시즌에도 40~50도루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LG 양상문 감독 역시 "우리 팀에서 50도루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양 감독이 꾀하는 뛰는 야구는 단순히 도루가 아니다. 단타 때 1루서 3루까지 가는 야구, 도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야구가 양 감독이 바라는 'LG표 스피드 야구'다. 양 감독은 "그 동안 타 팀 입장에서 LG는 상대하기 쉬운 팀이었다. 안타나 볼넷으로 출루해도 뛰려는 시도조차 안 하니, 상대 배터리는 타자와의 승부에

만 집중하면 됐다"며 "다른 팀들이 한화를 상대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경기시간이 길고, 선수들이 끈질기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다. 맞불기 전에 심적으로 힘들어지게 만든다. 우리도 상대를 최대한 괴롭히는 끈질긴 야구를 맞불기 싫은 팀이 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LG의 뛰는 야구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위력을 드러내고 있다. 선수들이 1루에만

나간 뒤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뛰면서 상대 내야진을 흔들고 있다. 양 감독은 "연습경기에서 유지된 (주루)코치와 '죽는 연습'을 하자고 애기했다"며 "죽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도루 타이밍, 타구 판단력이 생긴다. 아마 시범경기까지 계속 죽는 훈련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베이시어링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삼성 윤성환·안지민 등 일본서 추가 훈련 삼성 윤성환, 안지민, 차우찬, 장필준이 일본 오키나와에 남아 추가훈련을 한다. 삼성 관계자는 2일 "선수단은 4일 김해공항으로 귀국하지만 4명은 오키나와에서 훈련한 뒤 10일 귀국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상이 있는 선수도 있고 아직 몸이 덜 만들어졌다고 판단해 따뜻한 곳에서 훈련하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LG-삼성 연습경기 4-4로 비겨

LG와 삼성이 2일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구장에서 열린 연습경기에서 4-4로 비겼다. 이로써 LG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5승2무1패, 삼성은 3승2무4패로 마쳤다. 두산은 같은 날 일본 미야자키 아이비구장에서 벌어진 소프트뱅크 2군과의 연습경기에서 4-5로 패했다. 두산은 연습경기 1무6패를 기록 중이다.

여자야구대표팀 월드컵 상비군 26명 선발

한국여자야구연맹이 2016세계여자야구월드컵에 대비해 국가대표팀 상비군 26명을 선발했다. 투수 10명, 포수 2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4명이 포함됐다. 대표팀 코치로는 백기성 전 한화 코치와 현재 CMS여자야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주현 감독이 내정됐으며, 감독은 추후 선임할 예정이다.